

채약 습속과 전통지식, 무형문화로서의 함의 - 지리산, 덕유산 일원의 채약인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

박경용**

I. 머리말

채약(採藥) 전통은 건강 보전과 치병을 위한 문화적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인류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약초의 성상(性狀)과 기미(氣味), 약성 등 본초학적 지식을 비롯하여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의 전 단계에서 축적된 인류문화의 귀중한 지혜와 지식을 포함한다. 이처럼 채약활동은 건강과 치병을 위한 인류의 원초적인 생산양식으로 오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화적 사상들(cultural things)은 소멸의 기로에서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다. 이는 인류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소중한 민간지식의 단

* 본고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주하고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2021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심화연구(삼마니와 약초꾼)를 위한 현지조사 과정에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활용한 것임.

**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절을 초래함과 동시에 인류 문화원형의 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채약 습속은 일반 약초꾼이나 전문심마니를 비롯한 채약인들의 일상생활의 문화 양상을 의미한다. 이는 채약인으로 입문하게 되는 동기나 배경을 비롯하여 전문채약인이 되기 위한 기술·지식을 학습하는 과정과 산지 지형이나 토양, 기온 등의 자연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산삼과 약초의 본초학적 지식과 채취 기술, 산행 방식, 산행팀 구성과 사회관계, 규범과 신앙, 약초의 보관과 활용 등도 필수 시안이다. 이는 세대를 이어 구전으로 혹은 생활현장의 실천 속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이론이나 공식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생활현장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습득, 축적되었다. 이런 점에서 채약 습속은 공론화된 도식이나 개념의 이론적 체계를 갖춘 명시지(explicit knowledge)라기보다는 오히려 암묵지(tacit knowledge) 혹은 경험지(experience knowledge)에 가깝다.¹⁾ 채약 습속은 ‘이전 시대로부터 문화적 관습을 통해 전승받거나 개인 경험을 통해 획득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²⁾이라는 점에서 식물민속의 전통지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채약 습속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적인 관점의 심마니(심메마니) 언어를 비롯하여 규범과 신앙, 습속, 일상적 채삼 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채삼 언어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주로 지리산³⁾과 설악산⁴⁾, 오대산⁵⁾ 등의 채삼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제목에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
- 1) 박경용 (2009a). 전통의료 ‘경험지’의 의료문화사적 가치와 집성 및 활용방안: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2(2), 172.
 - 2)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010). 무형문화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전통지식의 수집과 아카이브 방안 연구계획서, 4.
 - 3) 장태진 (1965). 지리산지구 산삼채취인의 언어 실태. 가람이병기선생송수기념논문집.
 - 4) 이승녕 (1980). 소말단계에 들어선 설악산 심메마니 언어에 대하여. 방언 4; 이길록 (1975). 채삼인의 언어와 풍속-설악산, 오대산을 중심으로. 강원어문학, 3; 장정룡 (1992).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속초의 향토문화. 속초: 속초문화원. 연호택 (1993). 심메마니 언어의 연구 2-오대산 지역과 설악산 지역 언어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동대논문집, 21.
 - 5) 이길록, 앞의 글; 연호택 (1992). 심메마니 언어의 연구-오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논문집, 20; 연호택, 앞의 글 (1993).

않았지만, 이 외의 대다수 채삼인 은어 연구들⁶⁾도 채삼 활동이 가장 활발한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부는 ‘은어’라는 용어 대신 채삼용어⁷⁾, 삼메말⁸⁾, 삼메어⁹⁾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북한지역의 평안도¹⁰⁾와 함경남도·황해도¹¹⁾의 채삼 은어에 대한 연구도 식민지 시기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산간신앙의 측면에서 채삼 규범과 신앙¹²⁾을 고찰하거나 구비전승의 맥락에서 삼마니의 구전노래¹³⁾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채삼 문화 혹은 민속 일반을 다룬 채삼 습속¹⁴⁾이나 관습·관행¹⁵⁾ 혹은 풍습·풍속¹⁶⁾, 일상생활¹⁷⁾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일부는 채삼인의 관행과 이미지¹⁸⁾ 혹은 은어와 풍속¹⁹⁾, 삼메마니 연구²⁰⁾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채삼 은어를 포함하는 민속 문화 일반, 즉 규범이나 신앙, 채삼 기술·지식, 채삼활동 양상과 변화상까지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시기 평안도와 함경도의 채삼 풍습²¹⁾ 및 ‘인삼 사냥꾼’으로 호명되는 북미인디언의 채삼 관

-
- 6) 박영섭 (1982). 채삼인 은어의 분석고 논문집, 2; 배도식 (1993b). 삼메마니의 은어. 한국 민속의 현장. 서울: 집문당, 421-437; 신교균 (1980). 산삼채취인의 은어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9; 최범훈 (1984). 삼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 정성미 (2009). 삼마니·한지장·광부 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의 민족생활어. 서울: 국립국어원, 31-117.
 - 7) 최진원 (1938). 채삼용어. 한글, 58(6-7).
 - 8) 이산팔 (1937). 삼메말(채삼어). 한글, 58(5-10).
 - 9) 정성미, 앞의 책, 31-117.
 - 10) 小倉進平 (1929). 山人蓼採業者の隱語. 平安南北道の方言. 京城 京城帝大法文學部
 - 11) 小倉進平 (1931). 山人蓼採業者の隱語. 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 京城 京城帝大法文學部
 - 12) 배도식 (1993a). 삼메마니의 생활. 한국 민속의 현장. 서울: 집문당, 408-416; 47-49; 장정룡, 앞의 책, 668-670, 692-696; 국립민속박물관 (2016). 약초상과 삼마니. 167-186.
 - 13) 이만철 (1997). 인제영약 산삼가업 민속사 연구. 인제민속사. 인제: 인제문화원.
 - 14) 손진태 (1931). 강계 채삼인의 습속. 조선민속, 2; 최승순 (1975). 강원도 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이길록, 앞의 글; 우승하 (2014). 삼마니의 습속 변화. 민속학연구, 35.
 - 15) 설혜심 (2018).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북미대륙의 채삼(採蓼)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 인문과학, 113; 배병일 (1994). 산삼채취인-삼메마니의 관습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비교법학, 창간호
 - 16) 金村靉 (1931). 山人蓼採りの風習. 靑丘學叢 六; 이규태 (1985). <삼메꾼> 풍속고 개화백경, 4.
 - 17) 배도식 (1993a). 앞의 책, 403-420.
 - 18) 설혜심, 앞의 글, 169-203.
 - 19) 이길록, 앞의 글.
 - 20) 장정룡, 앞의 책.

행과 채삼인의 이미지²²⁾에 대한 연구는 주목된다. 16세기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여진족 사이에 채삼 갈등으로 인한 외교 분쟁 사례²³⁾를 소개한 연구도 눈길을 끈다. 채삼 습속에 대한 연구의 다른 한 갈래는 채삼 활동의 주체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온 심마니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일상의 경험과 인식에 주목하였다. 민족생활어의 관점에서 심마니 은어를 고찰하면서 3명의 심마니 생애사를 채록²⁴⁾하거나 ‘산신령을 만나는 심메마니’²⁵⁾ 혹은 토착지식의 전승자라는 입장에서 ‘토종문화의 끈’²⁶⁾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처럼, 채약 습속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문채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심마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산삼이 아닌 일반의 약초를 채취하는 약초꾼들의 채약 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종약초 활용법²⁷⁾을 소개하거나 약초꾼을 민간요법의 전승 차원²⁸⁾에서 접근해온 정도다. 어쩌면 건강 보전과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일반 약초들이 산삼보다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는 점에서, 일반 약초꾼의 채약활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미흡하다는 점은 학계의 성찰을 요한다. 이에 최근에는 식물민속과 무형문화의 맥락에서 평창군²⁹⁾을 비롯한 강원권(오대산·치악산)과 충청권(월악산), 전라·경상권(덕유산·지리산·가야산·팔공산)

21) 金村靑, 앞의 글. 이는 배병일 (1994). 산삼채취인의 풍습. 영남법학, 1(1), 157-169에 전문이 번역, 소개되어 있다.

22) 설혜심, 앞의 글, 169-203.

23) 최호균 (1997). 16세기말 채삼사건과 대여진정책. 대동문화연구, 32.

24) 정성미, 앞의 책, 31-51.

25) 임덕성 (1997). 산신령을 만나는 심메마니. 숨어사는 외톨박이, 서울: 뿌리깊은나무.

26) 이용한 (2001a). 심메마니·홍종덕·정병극·양승철·김영재. 끈·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서울: 실천문화사; 이용한 (2001b). 약초꾼·김명복. 끈·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서울: 실천문화사.

27) 최진규 (1995). 발로 찾은 향토명의, 서울: 청이출판사; 최진규 (1997). 약초꾼 최진규의 토종약초 장수법. 서울: 태일출판사.

28) 박경용 (2009b). 채약 민속과 민간의료. 인문학연구, 76; 박경용 (2011a). 산청지역 민간요법의 실제와 전승양상. 실천민속학, 18; 신용욱 외 (2009). 약초와 민간요법 기행, 산청: 산청군. 황창협 (2013). 지리산의 보석 같은 약초 이야기. 진주: 도서출판 해명.

29)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보고서, 93-197.

일대의 약초꾼과 심마니에 대한 채약 습속을 조사하기도 했다.³⁰⁾ 이러한 연구들은 약초상의 약초 거래 및 운영 방식을 비롯하여 약초꾼과 심마니로서의 입문 배경과 학습, 규범과 신앙, 채취 기술·지식과 도구, 채약활동과 유통 등 채약 습속을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수입산 약초의 공세 등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채약 습속의 전승 환경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산에 들기 전 습속과 집단생활의 습속, 채삼 습속 등으로 나누어 오늘날의 시류 변화 속에서 채삼인의 습속이 변화해온 양상³¹⁾을 고찰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채약 습속을 전통지식이나 무형문화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희소하다. 이는 문화 및 생명 다양성과 지식재산권의 보호³²⁾와 전통지식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과 전승,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³³⁾하고 있는 현실과도 엇나간다. 지금까지 수행된 채약 습속 관련 연구 내용들도 응당 전통지식이나 무형문화의 범주에 포함될지라도, 연구 관점이나 인식의 틀은 이로부터 비껴나 있었다. 식물민속 내지는 생산민속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사실 발견적 목적에서 나비채집 방식으로 조사해서 집성하는 정도였다.

채약 습속은 오랜 기간의 채약활동 과정에서 생성, 축적, 전승되어 온 것으로 채약인의 생활문화를 구성한다. 이는 건강 보전과 질병 치료를 위해 자연지식을 바탕으로 주변 산야의 약초를 채취해온 과정에서 생성되므로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생물자원을 전승, 이용해온 인간의 지식과 기술체에 해당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도 전통지식을 ‘자연과 더불어

3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2021). 심마니와 약초꾼의 습속. 2021년 한국무형유산 종합조사 심화연구 최종보고서.

31) 우승하, 앞의 글, 6-28.

32) 권재열 (2001).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보호방안의 검토 산업재산권, 14; 박갑록 (2004). 전통지식의 법적보호에 대한 접근 방법. 지적재산권의 현대와 미래. 서울: 법문사.

33) 강석훈, 이지은 (2012).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식재산권 연계 방안. 문화정책논총, 26(2), 82.

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로서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표준적, 실천적 지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⁴⁾ 채약 습속은 지역의 생태환경과 본초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생성, 축적, 전승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약초 식물민속의 전통지식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소멸의 기로에서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는 채약 습속이 전통지식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생태환경에 대한 채약인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무형문화로서의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약 습속의 전승 양상을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 및 채취 규범과 신앙, 채취 월령(月令)과 기술·지식, 민간요법의 활용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전통지식의 전승 양상과 무형문화로서의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채약 습속이 지니고 있는 전통지식이자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식, 환기시킴으로써 보존과 전승,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 범주와 연구방법

채약 습속은 문화 구성 체계에 따라 사회체계와 기술체계, 이념체계³⁵⁾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채약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공간과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³⁶⁾ 혹자는 심마니 습속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산에 들기 전 습속'과 '집단생활의 습속', '채삼 습속'³⁷⁾ 등으로 구분하기

34) 강석훈, 이지는, 앞의 글, 82.

35) White, L. A. (2002). 이문웅 옮김. 문화의 과학. 서울: 아카넷. 466-467.

36) 채약 습속을 채삼활동의 시·공간을 기준으로 해서는 '입산 전 습속', '채취 중 습속', '채삼 시 습속' 등으로 분류(최승순, 1975)하거나, 관련 내용 혹은 정보를 중심으로 '신앙과 규범', '입산·산행 지식과 관행', '약초 채취의 지식과 관행' 등으로 구분(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21)하기도 한다.

도 했다. 본고에서는 채약인의 생활문화라는 관점에서 채약 습속을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채약인이 되기 위한 동기와 견습생으로서의 학습활동을 비롯하여 전문채약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채약지식, 채취 월령과 기술·지식, 규범과 신앙, 채약 경험과 사회관계, 민간요법 활용, 구비전승 등이다.

첫째, 채약 입문 동기와 학습과정은 동기 부여의 계기와 견습생으로서 채약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 주요 내용이다. 독습 사례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을 따라 다니거나 스승을 두고 사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채약지식은 전문적인 채약 활동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자 소양으로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대한 지식과 약초의 성상과 기미를 비롯한 본초학적 지식, 약초가 서식하는 산야의 지형과 토양 및 기후 조건 등의 자연지식을 포함한다. 셋째, 채취 기술·지식은 약초를 발견해서 자연으로부터 수거, 전유하는 기술적 측면을 의미하며, 적합한 채취 절차와 도구의 활용 방식까지 포함한다. 약초의 본래 성질을 숙지한 바탕에서 원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약성의 보존과 이의 유통 및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채취의 최적기, 이른바 채취 월령(月令)에 대한 숙지도 필수적이다. 넷째, 채취 규범과 신앙은 약초와 산지 등 자연생태에 대한 관념과 채약의 사유체계, 채약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나 금기, 심몽(꿈), 고사의례, 산신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 채약 경험과 사회관계는 채약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팀 구성과 역할, 입산·산행 방법, 길 찾기, ‘방통’ 보기, 모듬 짓기, 소통 방식, 분배 방식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민간요법 활용의 차원은 채취한 약초를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함으로써 건강 보전과 질병 치료 효과를 실현하거나 그 과정에서 동원되는 관련 지식이나 관행, 기술을 포함한다. 전문채약인들은 오랜 채약 경험 속에서 습득한 민간요법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요법가로서의 위상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채약 구비전승은 채약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관련 노래, 은어, 전설과 설화, 채약 일화 등을

37) 우승하. 앞의 논문, 6-29.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 심마니 은어라든가 채삼단 조직, 종교행위 등은 이미 상당 부분 다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상의 7개 항목의 채약 습속 중 산지 지형이나 토양 등의 생태환경이나 본초학적 특성에 대한 채약인의 인식과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4가지 범주의 전통지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서술과 이론적 전제가 되는 주요 항목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연구전략, 즉 조작화(operationalism)³⁸⁾의 방편으로 채약의 자연지식 및 규범과 신앙, 채취 월령과 기술·지식, 민간요법 활용 등이다. 채약의 자연지식은 약초의 성장과 기미, 본초학적 특성, 서식·생장 조건 등에 대한 지식, 산지 지형과 토양·기후, 습도 등의 자연지식을 포함한다. 채취 규범과 신앙의 전통지식은 자연·생태에 대한 관점과 태도, 약초의 채취 규범과 사유체계를 비롯하여 금기와 꿈, 신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포함한다. 채약 월령과 기술·지식의 전통지식은 연중 채약주기와 채취 기술·도구, 채약 방법, ‘방통’과 ‘길 찾기’를 비롯한 산행 방법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요법 활용의 전통지식은 채취 결과물의 보관과 유통, 민간요법과 약용방법 등이다.

<표 1>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

전통지식	주요 내용	비고
자연지식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 약초의 성장과 기미, 본초학적 특성, 산지 지형·토양·기후·습도	· 경험지식 · 토착지식
규범과 신앙	채약인의 자질과 태도, 자연·생태 관점, 채취 규범, 금기, 꿈, 입산고사, 산신 신앙	· 채약 철학 · 입산 전후 의례
채취 월령과 기술·지식	채취 월령, 채취 기술과 방법, 채취 도구, 팀 구성과 역할, 입산·산행 방법, 길 찾기, 모듬 짓기, 소통 방식, 분배 방식	· 독립 산행 · 팀 산행
민간요법 활용	약초 보관과 유통, 민간요법, 약용방법, 단골 관계	· 주문 채약 · 자가 활용

38) Pelto, P. & Pelto, G. H. (1978). *Anthropological Research-The Structure of Inqui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40.

이를 위해 필자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덕유산 무주군과 지리산 함양군 일원의 2개 산지를 현지 조사하면서 심마니와 약초꾼³⁹⁾을 만나 채약 경험과 기억, 인식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부 채약인에 대해서는 채약 활동과정에도 참여하여 채약 기술과 지식을 비롯한 관련 습속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필자가 심층 면담한 10여 명의 심마니, 약초꾼의 경험과 기억의 내러티브(narrative)에 기초하고 있다.

다음의 <표 2>는 지리산 함양군과 덕유산 무주군 일원의 심마니와 약초꾼에 대한 개요이다. 전자는 함양읍과 마천면, 병곡면 일대에 거주하며, 후자는 덕유산 무주구천동 계곡 산지의 설천면과 무풍면 일대에 거주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채약활동에 종사해온 전문심마니와 약초꾼을 발굴하는 일이 1차적 과제였다. 필자는 지리산 함양군 일원의 심마니와 약초꾼을 만나기 위해 채약인들이 생산한 약초를 직접 판매하는 관내 거점시장(함양시장)과 거주공간인 지리산 계곡 마을을 방문하였다. 덕유산 무주군 일원의 심마니와 약초꾼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약초꾼 발굴이라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관광지로도 이름난 무주구천동 계곡지역의 마을로 곧바로 들어갔다. 이 지역은 무주군 무풍면과 설천면 2개 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대의 마을 사람들을 탐문하여 제보자를 발굴하였다. 이들과는 면담,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소장하는 사진자료들도 수집하였다.

<표 2> 지리산 함양군, 덕유산 무주군 일원의 채약인 개요

성명	연령 (성별)	거주지	경력	채약권역	비고
차○준	74(남)	함양읍 함양읍	30년	지리산, 전국	심마니, 야생난 채취
김○일	79(남)	함양군 병곡면	50년	지리산	일상적 채약인

39) 채약인은 심마니, 약초꾼을 통칭하는 용어로 전자는 채삼 활동 비중이 높는데 비해 후자는 채삼 활동을 하지 않는 채약인을 지칭한다. 일상적 채약인은 농사 등에 종사하면서 채약 활동에 임하는 부업 성격의 계절적 채약인에 해당하며, 전문채약인은 생계유지 목적의 전업 채약인을 의미한다.

정○만	73(남)	함양군 함양읍	57년	지리산	전문채약인
노○옥	78(여)	함양군 마천면	40년	지리산, 전국	전문채약인
문○희	69(남)	함양군 마천면	34년	지리산, 전국	전문채약인
김○식	85(여)	함양군 병곡면	63년	지리산	일상적 채약인
백○현	61(남)	무주군 무풍면	50년	덕유산, 전국	삼마니
황○제	49(남)	무주군 설천면	20년	덕유산, 전국	삼마니
김○기	49(남)	무주군 무풍면	25년	덕유산, 전국	삼마니, 약초 도매업
신○철	55(남)	무주군 설천면	25년	덕유산, 전국	삼마니
오○례	74(여)	무주군 무풍면	36년	덕유산	삼마니, 전문채약인

본 연구는 구술자로서 자료제공자이자 연구 참여자의 지위를 갖는 채약인들의 경험과 기억, 인식과 태도, 관점을 중시한다. 이는 외부자로서의 연구자 관점보다는 문화 전승 주체의 내부자적 관점을 중시하는 에미적 접근방식(emic approach)이다.⁴⁰⁾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은 오래 전부터 일상적 경험 속에서 생성, 전승되어온 지적 산물이므로 채약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은 세대를 통해 구전되고, 경험지식으로 기억 속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실천 속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오랜 시행착오와 다양한 경험 속에서 생성된다.⁴¹⁾ 따라서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은 전승 주체의 인식과 경험, 기억을 구술을 통해 현재화시킴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가장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학술적 개념과 설명 모델이나 구조에 의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채약인들의 경험과 기억, 인식의 틀에 기초한 구술 내러티브(oral narratives) 방식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비교연구를 통해 규칙성이나 일반이론을 지향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인 방식이기보다는 구체적 사실의 정확한 기술을 통해 문화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개별기술적(ideographic)인

40) Crain J. G. & Angrosino, M. V. (1996). 한경구, 김성례 옮김.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서울: 일조각. 186.

41) 박경용 (2011b). 죽방렴과 주니어업의 자연·우주 전통지식. 한국학연구, 38, 10.

방식이다.⁴²⁾

Ⅲ.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나타나는 전통지식

“지리산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약초들이 있다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리를 당연히 알죠. 자리 모르면 약초 못 캐요” 위의 언설들은 모두 지리산에서 30년 이상씩 약초를 채취해온 전문채약인들이 강조하는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대한 표현들이다. 동일한 산지일지라도 약초의 종류에 따라 서식·생장 조건이 상이하다. 고도와 방향, 기온, 습도, 토양, 지형, 지질, 주변 환경 등이 약초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다. 채약인들은 오랜 경험지식으로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을 터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는 이른바 ‘약초지도’가 그려진다. 전문채약인들은 약초지도를 바탕으로 계절 따라 목표 채약 혹은 목적 산행을 할 수 있고, 체계적인 약초 관리도 가능하다. 30대 중반부터 40여 년간 지리산 자락을 누비며 약초를 캐온 노○옥의 다음 구술은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대한 채약인의 인식을 잘 드러내준다. “같은 산이라도 그 약초가 자라는 토양이 다 달라요. 이런 애들은 흙이 약간 찰지고 약간 황토 같은 데 있다든가, 어떤 놈은 좀 사질토에 있다든가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런 지식이 채약인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약초와 고도, 그리고 습도, 기후, 지질, 토양, 지형, 주변 환경 등의 상관성 그제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약초에 대해서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⁴³⁾

지리산에서 34년 동안 채약 활동을 해온 문○희는 이와 같은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리산 약초의 특성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지리산 약초는 남동보다는 천왕봉 북방 음지에서 나는 것이 제일 약효가 좋다. 영상 기온으로 있다가 한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까지 내려가 고도

42) Radcliffe-Brown, A. R. (1980). 김용환 역. 원시사회의 구조와 기능. 서울: 종로서적. 3-5.

43) 노○옥 (2021.9.20.). 경남 함양군 마천면. 자택 면담.

에 따른 기온 차이가 크므로 생존하기 위한 약초 자체의 단련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 자라는 산삼은 그만큼 강한 약성을 갖는다.⁴⁴⁾ 서식지 방위와 고도는 계절에 따른 기온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한여름의 산삼은 대궁(삼대)이 실하지 못하고 보관상의 어려움도 크다. 반면, 추석 이후부터 다음 해 봄까지의 산삼은 약효도 양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다.

산삼은 ‘영물’이므로 서식조건 또한 까다롭다. 산삼의 ‘날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이 때문이다. 방향은 북쪽을 낀 곳으로 동북쪽, 서북쪽 등 강한 햇살을 받지 않는 곳이다. 산삼이 날 자리는 산삼 씨앗이 발아하기 쉬운 아늑하고 포근한 곳으로 통풍이 원활해야 한다. 지리산으로 치면 침엽수와 활엽수 비율이 40 : 60 정도 되는 곳으로 사질양토에 동북방향으로 70%는 음달에 약간 아침햇살을 받고 온기가 좀 있는 데서 적응을 잘한다. 작약(芍藥)이나 당귀(當歸)의 서식 조건도 이와 유사한데, 큰 나무가 많아 산새가 휴식하기 좋은 장소가 산삼이 날 자리로 꼽힌다. 산삼의 씨앗을 따먹은 새가 모여 쉬면서 똥을 배설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심마니들은 산행을 하면서 이와 같은 지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세(山勢)를 보면 대충 알아요”라는 말처럼, 심마니들은 산삼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산행 구역으로 정한다. ‘방통’으로 일컫는 산의 모양새를 간파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기본적인 자연지식에 해당한다. 산삼 서식의 지형적 조건은 성장의 일화(episode) 속에 투영되므로 채취 후의 모양을 바탕으로 감정하는 데도 참고자료가 된다. 예컨대, 성장 환경이 척박한 바위틈에서 자란 경우 삼의 뿌리가 크지 않으며 둥근 모양의 ‘밤알삼’이 되기도 한다.

산삼의 씨앗은 바람으로 운반될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조류에 의해 확산된다. 심마니들은 채삼 과정에서 때로는 산삼 씨앗을 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채삼과 동시에 이를 수거해버리므로 새가 쪼아 먹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자연과의 조화와 상생, 공존의 채삼 윤리를 강조하는

44) 문○희 (2021.8.20.). 경남 함양군 마천면. 식당 면담.

전문심마니들은 자연으로부터 수거해오는 것만큼 되돌려주려 한다. ‘자삼(子蓼)’ 혹은 ‘손자삼’으로 표현하는 새끼삼을 보존하는 것에 더하여 삼의 씨앗을 채삼 자리에 심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심마니들은 이를 ‘자연에 대한 예의’라고 말한다.⁴⁵⁾

심마니들에게는 공유된 ‘삼자리’가 있듯이, 개인만의 ‘삼자리’도 있다. 이곳은 대개 은밀하게 관리되며, 심마니의 머릿속에는 ‘채삼지도’로 남겨지고 주기적인 산행의 목표지점이 된다. ‘삼자리’는 보통 유별난 기운이 흐른다고 한다. 돌이 없고 검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다. ‘구광자리’로 일컬어지는 ‘삼자리’는 산봉우리나 방향, 계곡, 능선 등을 비롯하여 주변의 바위, 나무, 숲 등 다양한 지형, 지물 등으로 좌표가 새겨진다. 북미대륙의 인디언 심마니들도 붉은 형꽃조각을 주변의 나무에 매달거나 깃발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표시해둔다.⁴⁶⁾ 채약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때로는 사진이나 그림,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상의 채약지도’ 형태로 기억한다. 채약인들은 주기적인 방문 관찰과 비밀 엄수 등의 방법으로 ‘삼자리’ 관리를 면밀하게 해나간다. 채약인 노○옥은 지리산 1,300m 지점에서 봐둔 산삼을 17년 동안이나 3년마다 다니면서 확인해오고 있다. 이곳은 처음으로 산삼을 채취했던 장소인데, 당시 봐두었던 아기삼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는 최소한 30여 년은 돼야 제대로 된 약성이 있을 것 같아 지속적으로 관찰해오고 있다.⁴⁷⁾ 40년 경력의 지리산 함양군 일원의 심마니 차○준도 삼을 캔 자리는 산의 생김새 등 산세와 고도, 방향 등으로 구광자리를 기억해두면서 2~3년에 한 번씩은 가본다.⁴⁸⁾ 어린 삼은 보존해서 키우고, 때로는 삼씨를 심어둔다. 삼이 나는 자리에는 잠자던 것이 새로 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삼 지식과 기술의 가장 으뜸은 산삼의 서식 및 생장 습성에 대한 지식이

45) 위의 구술.

46) 설혜심, 앞의 글, 182.

47) 노○옥, 앞의 구술.

48) 차○준 (2021.10.15). 경남 함양군 함양읍. 전화 인터뷰.

다. 이는 산삼의 습성이자 생장 조건과 관련되는 지식의 영역으로 지형과 고도, 토양, 기온과 습도, 방위 등이 포함된다. 덕유산 무주군 일원에서 20여 년간 채약활동을 해온 심마니 황○제는 지리산 채약인 문○희의 구술처럼, 산삼의 습성과 관련하여 서식 조건에 적합한 지형적 특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는 도라지와 더덕 등 다른 약초의 습성을 비교하며 설명한다. 반음지이면서 수분이 양호한 곳에서 자라는 더덕의 습성이 양지식물인 도라지보다 산삼에 더 근접한다. 또한 산삼은 동쪽과 북쪽 그 사이, 즉 동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서식·생장 조건에 적합하다. 산이 깎아지르듯 높고 경사진 산지보다는 평평짐하면서 좀 넓은 자리가 서식하기에 좋다. 아침에 해가 뜰 때 햇살이 약간 비치는 곳이 산삼자리로 적합하므로 적당하게 햇볕이 드는 곳이 좋다.⁴⁹⁾

심마니는 이런 점에서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습성을 알고 씨앗이 제대로 발아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서식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산삼 씨앗이 앓더라도 썩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햇볕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수분이 적당하게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산삼이 나는 곳은 공통적으로 시원하며, 바람이 잘 통한다. 원래 높은 곳은 뿌리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해발 700~800m 고지가 산삼 서식지로 적당하다. 덕유산 구천동 계곡의 밀집겨주지역의 경우, 해발 610m 정도이므로 그 지점에서 200m까지 올라간 위치가 적정 고도에 해당한다. 이보다 더 올라가면 산삼이 서식할 확률이 차츰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 높은 고도에서도 산삼을 캘 수 있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더해지므로 채취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산삼일 가능성이 높다.⁵⁰⁾

산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조건들 외에 토양 여건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낙엽이 썩어 만들어진 부엽토가 좋다. 약간의 습기를 머금은 부엽토는 시커먼 색깔을 띠는데, 황토는 토질이 딱딱하여 좋은 삼이 나올 확률이 낮다. 부엽토는 물기가 없는 흙을 손으로 꼭 쥐어서 흠어지지 않고 그대로 뭉쳐있는 상태가 좋다. 이는 “삼이 습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니까요”라는 말

49) 황○제 (2021.7.2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자영식당 면담.

50) 위의 구술.

처럼, 적당량의 수분을 함유한 토질이 산삼이 자랄 수 있는 최상의 토양 조건임을 의미한다. 덕유산 심마니 신○철은 후배 심마니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상이한 조건의 흙을 손으로 짚 쥐어보고 비교하며 가르친다.⁵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삼을 비롯한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의 전통 지식은 오랜 기간의 채약활동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 이는 산지 지형과 고도, 기후, 토양, 습도 등 자연환경 특성에 따라 구축되는 토착지식(native knowledge)이자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이기도 하다. 채약인들은 산지의 환경특성을 반영하는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대한 자연지식을 바탕으로 채약활동에 참여한다.

IV. 채취 규범과 신앙행위에 나타나는 전통지식

심마니들은 채삼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금기를 따르며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부인과의 잠자리 금기는 그 중 하나인데, 보통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이른다. 이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남자들끼리 합숙도 한다. 입산 전날에는 목욕재개하며 더욱 마음을 가다듬는다.

심마니들은 때로는 산삼을 채취하는 날 산삼자리에 대한 암시 등과 같은 특별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 경험은 다양하다. 지리산 심마니 차○준은 여러 번의 채삼 과정에서 이러한 꿈을 꾸지 않은 적은 없다. 다만, 그는 좋은 야생난초나 산삼을 채취하는 날은 편안하고 깊은 숙면을 취한 때가 많았다. 이는 인체 생리학상 심신의 컨디션을 좋게 만듦으로써 원만한 산행이 가능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변의 사물을 잘 식별하도록 해준다. 이것이 산삼을 채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심마니로서 산행 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은 마음을 정갈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심마니에

51) 신○철 (2021.7.22). 전북 무주군 무풍면. 자택 면담.

게 복잡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욕심을 덜어 내고 언행에서 자기 절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런 자세는 채삼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나눔과 배려로 실천된다.⁵²⁾

여러 사람들과 팀을 이뤄 산행을 해온 덕유산 심마니 신○철도 채삼 활동에 임하는 태도와 지켜야 할 중요한 규범 중의 하나로 ‘나눔과 공유’의 원칙을 강조한다. 팀워크 산행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산삼을 발견하면 동행 심마니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채삼의 역할을 맡긴다. 그리고는 채삼 결과물을 팀원들이 나누어 가진다.⁵³⁾ 이는 수렵채집사회에서 사냥의 결과물을 나눔으로써 생계자원의 안전한 확보가 불확실한 한계상황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과도 상통한다.⁵⁴⁾ 산삼 발견자의 자가 채취 금지 규범은 역할의 나눔과 채삼 결과물의 균분의 의미 외에도 채삼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미도 지닌다. 이와 같은 나눔의 원칙과 표리부동의 규범 중의 하나는 결코 산삼을 몰래 채취,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벌칙으로 팀워크 산행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⁵⁵⁾

채약인들이 산삼을 비롯하여 약초와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및 채약 활동의 철학적 사유도 넓은 의미에서는 채취 관행과 규범에 속한다. 지리산 일원의 전문 채약인 노○옥의 상생과 공존, 친환경적 채약관은 시사하는 바가 적

52) 차○준 (2021.4.17.).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시장 약초매장 면담.

53) 국립민속박물관(2016: 120-121)과 이길록(1973: 25)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발견자가 모두 가지는 ‘독매(혹은 각매)’와 분할하는 ‘원양매(혹은 동매)’로 나뉘는데, 이는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른다.

54) 이는 식량 부족과 결핍, 획득의 불확실성이 큰 수렵채집민(hunters and gathers)의 경제활동과도 상응하는 측면으로, 이들은 사냥감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공동 분배하는 평등의 원리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예컨대, 오늘 어느 한 사람이 사냥에 성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줌으로써 후일 내가 사냥에 실패할 경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기도 하다. 빈곤의 잠재성이 큰 수렵채집민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풍부함을 나누어 갖는 행동양식을 문화적으로 확립하는 것으로 나눔의 관습을 제도화함으로써 식량 부족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한다. Shalins, M. D. (2014). 박충환 역. 석기시대 경제학. 서울: 한울. 304-305.

55) 신○철. 앞의 구술.

지 않다. 약초꾼을 자연(산, 약초)과 외부인(약초 수요자) 사이의 ‘중개인’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40년 동안 지리산 약초꾼으로 살아온 전문채약인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사유방식을 집약해준다. 일상에서 채취해온 약초는 자연의 일부이며, 비록 자신이 발견한 것일지라도 산의 바깥세계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채취한 약초를 채약인의 소유물로 간주하기보다는 질병 치료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에서 그녀는 채취한 약초를 판매할 때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으며, 채취 도중 생기는 하자품 외에는 자가 활용을 위한 채취는 가능한 절제한다.⁵⁶⁾

이러한 ‘중개자’로서의 채약인 정체성은 그녀의 채약 관행과 철학으로 실천된다. 그녀는 채약 주문자이자 수요자인 외부인이 원하는 만큼만 채취하는 것을 모토로 삼는다. 채취해온 천마나 더덕, 도라지, 백출, 당귀, 오미자, 칩순, 다래순 등이 비록 어느 한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될지라도, 그녀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량만큼만 채취한다. 오미자나 칩순, 다래순 등도 채취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따낼 뿐이다. 이러한 채약 철학은 ‘적정 채취’를 통한 보존과 공존, 공생,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함의한다. 채약의 근원이자 모체인 모초(母草)가 있어야 거기서 씨앗이 열매를 맺고 뿌리 번식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약초의 생명이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약초의 지속적 생장이 가능하고, 약초꾼들도 해마다 그 일부를 수취할 수 있다. 이러한 약초 채취의 철학은 그녀가 줄곧 견지해온 주문 채약 방식으로 뒷받침된다.

그녀는 주로 알음알음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주문 채약에 응해 왔다. 그 범위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비롯하여 ‘동서남북’에 뻗어 있다. 그녀는 주문 받는 순서대로 채약하여 마천면 소재지로 나가 택배로 부쳐준다. 약초를 제때 캐지 못해 당해 주문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음해로 미룬다. 이는 발견되는 대로 모두 채취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과잉 채취’ 혹은 ‘극대 이윤

56) 노○옥, 앞의 구술.

추구의 채취'와는 정반대다. 산삼을 비롯한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채취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때 공급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초는 생물이므로 채약 이후 활용 시기를 놓치면 시들거나 썩어버려 생명력을 잃게 된다.⁵⁷⁾

산삼이 서식하기 좋은 곳을 '명당자리' 혹은 '삼자리'라고 부른다. 심마니가 산삼을 채취한 장소가 그 중 하나인데, 이러한 '삼자리'는 언제든지 산삼이 다시 자라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채삼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마니들은 이곳을 '내 구광자리'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비밀로 한다. 이러한 '삼자리 비밀'의 관행은 어민들이 발견한 새로운 어초(魚礁), 즉 '처녀어초'를 '생계를 위한 발'으로 인식하고 비밀리에 관리하는 행위와 유사하다.⁵⁸⁾ 공유자원의 비밀주의는 개별적 발견의 수고와 전유의 지속적 혹은 영구적 독점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또한 자연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채약인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송이버섯은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남한테 알려주면 박살이 나요"라는 등의 언설들은 모두 약초 서식 자리의 비밀주의 혹은 비의성(秘意性)을 함의한다. 심마니를 비롯한 채약인들은 산삼뿐만 아니라 버섯류를 포함하는 다른 약초의 서식지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이와 같은 채약의 비밀주의도 약초 보존과 자연과의 상생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이자 광의의 채약 규범과 사유체계에 속한다. 이는 공유자원의 독점적 전유 의지를 내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공존과 상생,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적 전략이기도 하다. 가치 있는 약초의 서식처 공개는 많은 채약인들의 방문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식처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연구자에게조차 "절대 발설 안 하

57) 위의 구술.

58) 박경용 (1992). 삼천포시 어촌의 경제와 발전전략. 전경수 편. 한국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서울: 집문당. 204-206.

죠”라거나 “그건 안 됩니다. 썩대밭이 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등의 직설적 어법으로 혹은 이전의 유사 사례를 예시하며 ‘상상의 약초지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를 거부한다.⁵⁹⁾ 이러한 태도는 송이버섯을 비롯한 이른바 ‘대물약초’를 채취하는 채약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딘(G. Hadin)의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경계하기 때문이다.⁶⁰⁾

“산에 있는 것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약초에 대한 비밀주의를 견지하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논리적 모순일지도 모른다. 지리산은 국립공원지역으로 모든 임산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면서도 만인의 공유자원이다.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 공생관계의 유지가 궁극적으로는 양자 모두에게 생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준다. 산야의 약초가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공유주의와 내가 발견한 소위 ‘대물약초’의 서식처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절대 비밀주의는 모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공존과 공생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합리적 모순’ 혹은 ‘선한모순’이기도 하다. 독점적 전유의 배타주의와 지속 가능의 보존주의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약초의 비밀주의는 주변 산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전문채약인들에게는 생존의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공통의 인식체계일 것이다.

오늘날 채약인들의 채취 규범과 신앙은 ‘변화와 지속’으로 특징지어진다. 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합리적 사고의 진전에 따른 종교적 세계관의 변용을 의미한다.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약활동이 자연현상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근원적인 종교적 심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덕유산 심마니 황○제는 산신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오를 때에는 간단하게나마 막걸리라도 부어놓고 절을 한다. 산신을 대하는 관행적 삼배를 함으로써 심마니들의 보편적인 종교적 관념을 표상한

59) 문○희, 앞의 구술.

60) Ha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다. 산행 중 산삼을 발견한 후에도 ‘감사’의 표시로 반드시 삼배를 한다.⁶¹⁾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생각이나 말과 다를지라도, 입산 때와 산삼을 발견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관행적 행위를 넘어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내면의 근원적 종교 심성을 나타낸다. “저절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큰 절을 하게 되더라.”는 것은 종교적 심성의 근원적 표현이다.⁶²⁾

덕유산 심마니 신○철은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산신령의 존재를 믿고 있다. 입산 전에는 산신령에게 보고하고 입산을 허락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삼을 발견했을 때는 감사의 표시로 산삼에게 절을 한다. ‘산삼은 영물(靈物)’이라는 표현처럼, 산삼을 산신령과 동일한 신격으로 생각하는 인식체계임을 보여준다. 그는 입산 고사의례의 종교적 마음가짐은 입산의 보고와 허락의 의미이지 산삼을 보여 달라는 욕망의 바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좋은 삼을 보게 해달라’는 일부 심마니들의 바람과 배치된다.⁶³⁾

그는 산행 금기 사항으로 입산 전에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절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의도하지 않게 산행 전날 개고기를 먹고 나서 돌밭에 빠져 다쳤던 경험은 이러한 금기를 더욱 굳게 지키도록 만들었다. 이후로 그는 산행뿐만 아니라 일상의 식생활에서 아예 개고기 식용을 끊게 되었다. 당시 동행 심마니에게 사고 상황을 전화로 알려면서 “삼한테 맞았어요” 했더니, 대뜸 그는 “너 개고기 먹었지?”라고 반응했다. 산행 전 행하는 목욕재계 행위도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도 산행팀에서 산에 가자고 날을 잡으면 최소한 3, 4일 정도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는 동료 심마니들도 지키고 있는데, 옛 심마니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그가 스승으로부터 채삼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채삼 규범이자 원칙으로 내면화했던 다른 한 가지는 산삼 채취를 목표로 산에 오를 때에는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 산삼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가르침이다. 심마니 스승은 목표 지

61) 황○재, 앞의 구술.

62) 위의 구술.

63) 신○철, 앞의 구술.

점까지의 산행 이후 하산 시에만 다른 약초 채취를 허락했다. 그는 채삼 산행 도중 커다란 더덕을 발견하여 채취하다가 스승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기도 했다.⁶⁴⁾

심마니들은 산에 오르기 전에 입산고사를 지낸다. 막걸리나 과일, 북어포 등을 차려놓고 삼배를 올리고 산신령께 무사 안전과 행운을 기원한다. 이러한 치성의례(산신제) 관행은 형식이나 절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산행 시의 안전사고나 채삼의 행운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시간에 대한 종교적 기원의 심성에서 기인한다. 액운은 피하고 행운은 맞아들이고자 하는 종교적 심성의 보편성을 나타낸다.

V. 채취 월령과 기술·지식에 나타나는 전통지식

채약 기술과 지식은 약초의 서식·생장조건과 관련되는 본초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채약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중요시 되는 전통지식의 한 부분이다. 이는 채취 월령과 현장에서 구현되는 채취의 절차 및 도구의 활용을 비롯한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채약인들은 약초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약초를 채취하는 기술과 지식을 구비한다. 일반적으로 약초는 약성이 최고조일 때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종적인 소비가 가능한 일정한 절차와 원칙을 따른다.

약초 채취 시기는 약용 부위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뿌리를 쓰는 것은 가을걷이가 끝나고 이듬해 봄까지 캐는 것이 좋다. 잎으로 약을 쓰는 것은 잎에 약성이 가장 많은 여름에 채취하는 것이 좋다. 열매를 약으로 쓰는 것은 과육이나 씨앗이 여물은 가을이 채취의 적기다. 심마니나 약초꾼들은 보통 이러한 채취 월령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절별로 채약활동에 임한다. 산청군

64) 위의 구술.

금서면의 지리산 일원에서 전문약초꾼으로 살아오는 민○호에 의하면, 봄에는 더덕, 초오(草烏), 잔대를 캐고, 가을에는 백작약(白芍藥)과 독활(獨活), 강활(羌活)을 캐고 오미자를 탄다. 표고버섯은 봄과 가을에 탄다.⁶⁵⁾

채약 시기는 채취 작업의 수월성과도 관련되나 최적의 약성 유지 여부가 핵심이다. 동일한 약초이더라도 잎이나 꽃, 줄기, 뿌리 등 약용 부위에 따라 채약 시기는 달라진다.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30년 동안이나 약초를 캐면서 살아온 전문채약인 노○옥은 이른 봄이면 다양한 약초순을 채취한다. ‘갈용(葛葺)’으로 일컫는 칩순은 씹이 돌을 때 곧바로 채취해서 생으로 먹고, 말려서는 분말약으로도 사용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마르며 갈증이 나는 것을 해소하는 칩의 뿌리(갈근, 葛根)는 칩순이 피어나기 전인 2월경에 채취한다.⁶⁶⁾

다음의 <표 3>은 20세부터 시작하여 60여 년간 채약활동을 해온 지리산의 전문약초꾼 김○식의 채약 월령이다. 약초 채취가 집중되는 시기는 가을 낙엽이 지는 10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주요 채취 품목은 두충(杜仲), 유근피(楡根皮), 주치, 하수오(何首烏), 속단(續斷), 삼주뿌리(창출, 백출), 우슬뿌리 등 주로 뿌리 약초들이다. 약초꾼들의 공통된 인식과 같이, 이 시기에는 한 해 동안 잎이나 줄기에 축적해두었던 약성(약 효능)이 모두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봄에 잎이 피어나 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반대로 약성이 잎이나 줄기로 올라가므로 뿌리 약초의 채취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녀는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부터 4월까지의 고사리를 비롯한 각종 나물류를 채취한다. 한여름에는 무더위와 숲이 무성해져 약초가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약성도 저하되므로 채약활동을 멈춘다. 그러다가 8월~9월에는 산오미자를 채취한다. 9월~10월에는 송이버섯과 ‘국버섯’으로 일컫는 능이버섯, 사리버섯 등을 집중적으로 채취한다.⁶⁷⁾

65) 민○호 (2009.7.4.). 경남 산청군 금서면. 자택 면담. 황창협. 앞의 책. 90-91.

66) 노○옥. 앞의 구술.

67) 위의 구술.

〈표 3〉 지리산의 전문채약인 김○식의 채취 월령

월령		종류	비고
가을 ~겨울	10월 하순 ~익년 3월	두충, 유근피, 주치, 허수오, 속단, 삽주뿌리, 장출, 백출, 우슬뿌리...	· 땅이 얼어 채약이 힘든 한겨울 중단
봄	3월~4월	고사리, 나물류	-
여름	8월~9월	오미자	-
가을	9월~10월	송이버섯, 국버섯(능이버섯), 찌리버섯	· 산주의 단속 후 채약 중단

이에 비해 산삼은 채취의 수월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 즉, 산삼이 육안으로 가장 잘 식별되는 시기가 채취의 적기에 해당한다. 산삼 채취는 봄에 싹이 돋는 시기부터 시작하여 잎이 지는 때까지 가능하다. 심마니들은 잎이나 열매를 보고 산삼을 식별할 수 있다. 산삼이 가장 잘 보이는 시기는 5월과 7월이다. 5월에 잘 보이는 것은 다른 식물에 비해 산삼의 싹이 비교적 일찍 올라오기 때문이다. 칩냉쿨이라든가 덤불 같은 식물의 싹이 올라오기 전에 산삼이 먼저 삼대를 올린다. 6월로 접어들면 숲이 무성해져 산삼이 그 속에 파묻혀 들어가 버리므로 잎이 잘 보이지 않는다.

7월이 되면, ‘딸’이라고 일컫는 산삼의 열매가 빨갭게 익게 되므로 멀리서도 잘 보인다. 빨갭게 익은 상태가 이후 한 달 동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일찍 새가 따먹는 경우에는 산삼의 씨가 없고 줄기만 남게 되어 다른 풀하고 섞여버리므로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씨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삼 채취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황절삼’이라 칭하는 것처럼,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면 삼대가 노랗게 변한다. 덕유산 자락에서 더덕을 캐는 시기도 산삼과 비슷하다. 허수오도 싹이 올라오는 시기가 산삼의 경우와 동일하다. 능이버섯은 주로 가을철에 채취한다. 9월 10일경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채취한다. 한번 채취한 후 3~4일이 지나면 다시 채취할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여 반복적으로 올라온다. 오미자는 빨갭게 익는 시기가 추석 이후이므로 대략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가 채취의 적기다.⁶⁸⁾

이상의 전문심마니 황○제의 채취 월령은 아래 <표 4>처럼,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채취 품목은 산삼과 버섯, 오미자, 하수오, 더덕 등에 제한된다. 채취 시기도 이를 기준으로 삼이 나는 5월부터 시작하여 버섯류를 채취하는 10월까지 집중된다. 이는 덕유산 구천동에서 식당업을 생계의 주 원천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전문심마니로서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초 채취가 주업인 오○례의 채취 월령은 아래 <표 5>처럼, 연중 오밀조밀한 편이며, 채취하는 약초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사시사철 산에 다녀야’ 하는 입장이므로 계절 따라 성장하는 약초를 그때그때 채취한다.

<표 4> 전문심마니 황○제의 채취 월령

월령	약초	비고
5월, 7월	산삼	· 6월 휴식
9월~10월	송이, 능이버섯	· 산삼, 오미자 병행 채취
10월~4월	하수오, 도라지, 더덕	-

<표 5> 덕유산의 전문채약인 오○례의 채취 월령

월령	약초	비고
10월~3월	때똥나무, 생강나무, 관솔, 싸리나무, 헛개나무, 느릅나무, 두충나무, 마가목, 접골목, 골담초, 오가피, 율나무	· 나무약초 중심
3월 말~4월	고사리, 나물류(취나물, 곰취, 편풍대), 나무순(두릅)	· 나물류 채취 집중
5월~8월	산삼	-
9월	산삼, 버섯(송이버섯, 능이버섯)	-
10월~11월	산삼, 더덕, 오미자, 도라지, 당귀, 하수오, 세신, 천궁, 영경귀, 우슬	· 삼삼 채취 10월까지 · 열매, 뿌리약초 중심

그녀는 10월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때똥나무, 생강나무, 관솔, 싸리나무, 헛개나무 등 여러 가지 약나무를 채취해서 판매한다. 3월 말경이나 4월이 되면

68) 황○제. 앞의 구술.

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하므로 취나물, 곰취, 편풍대 등의 나물류를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채취한다. 5월부터는 산삼 잎이 나오기 시작하므로 9월경 황절삼이 나오고 잎이 지는 10월까지 채취한다. 특히 9월에는 능이나 송이 등의 버섯류가 잠깐 동안 피어나므로 집중적으로 따낸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더덕, 오미자, 하수오, 당귀, 천궁(川芎), 우슬(牛膝) 등의 뿌리나 열매 약초를 채취한다. 약초꾼의 연중 채약활동은 이와 같은 주기를 따라 매년 순환된다.⁶⁹⁾

채삼을 위한 산행은 먼저 산의 지형을 살펴본 후 예상되는 경로를 미리 정한 다음 시작한다. 해발 1,000m 이상이 되면 산이 깊어 10m만 떨어져도 옆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산행 중에는 옆 사람과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옆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면 산을 제대로 볼 수도 없다. 팀 산행에서는 ‘깔끔하고 후회 없는’ 산행도 중요하다. 높은 산으로 가면 숲이 짙고 산세가 험해 팀원 간 산행 간격을 10~20m 정도로 유지한다. 어느 산을 목표로 해서 갔으면, 산행 구역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을 경우 후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산을 한번 오를 때는 ‘어! 거기 빠졌는데, 또 가봐야 되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밀하고 깔끔하게 봐야 한다.⁷⁰⁾

산행 중에는 동료들과의 소통을 위한 신호 체계와 예기치 못하는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핸드폰이 없던 시기에는 채취용의 곡괭이 자루로 나무를 쳐서 소리 내어 소통하였다. 예컨대, 두 번이면 하산, 세 번이면 어느 쪽의 방향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전에 약속한다. 때로는 호루라기를 이용하거나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지르는 고음의 특유한 소리로 소통한다. 소리 한 번으로는 왼쪽으로 오고, 두 번으로는 오른쪽으로 오라는 등으로 약속한다.

산삼을 발견하면 먼저 “심봤다!”를 외치면서 동료들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홀로 산행일 때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하고 산신령께 절을 세 번 한다. 그리고는 산삼을 채취한다. 산삼의 크기와 주변 지형을 잘 살핀 다음 곡괭이로 삼자리 아래쪽 둘레의 흙을 파내려 간다. 지리산 심마니 차○준은 입문 과정에

69) 오○례 (2021.8.29.). 전북 무주군 무풍면 자택 면담.

70) 신○철. 앞의 구술.

서 스승이 하던 방식대로 채취 시작 전에 먼저 삼대를 Y자 지지대로 곧추 세운다. 이는 삼대의 보존과 채삼 작업의 수월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삼대가 분명하게 식별돼야 이를 기준으로 채취 작업이 용이하다. 채취 후에도 삼대가 온전해야 보존이 용이하고 판매 성과도 좋다. 산삼의 뿌리가 드러나면 대나무로 얇게 깎아 만든 채삼 도구를 이용하여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낸다. Y자 지지대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잘라 현장에서 조달하지만, 대나무 채삼도구는 미리 구비해서 가지고 다닌다.⁷¹⁾

산삼 채취 시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희열과 성취감으로 정신적인 고조 상태에 이른다. 초보자일수록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고 지속된다. 20년 경력의 덕유산 심마니 황○제는 산삼을 발견하는 전후 순간에 ‘머리가 뺨죽뺨죽 서는’ 그런 느낌과 기분이었다고 한다. ‘머릿속이 하얘진다’거나 ‘약간 소름이 돋는다’고도 표현한다. 때로는 ‘뒷목이 멍긴다’는 느낌도 받는다. 그는 이런 기분이 채삼 활동의 초기 5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⁷²⁾ 초보 심마니의 경우, 희열감에 도취되어 흥분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빨리 채취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채취 작업을 서두르게 된다.

산삼을 발견한 기쁨과 감격으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 채삼 과정에서 삼대를 밟거나 부러트리고, 잔뿌리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판매과정에서 상품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산삼은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 없이 잘 채취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말은 이 때문이다. 잘못하여 삼대를 밟게 되면 삼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차○준도 산삼을 발견한 후 잘못하여 삼대를 밟아버리거나 부러트려 채취하지 못한 경우도 두 번씩이나 된다.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채취 시작 전에 먼저 Y자 지지대로 삼대를 곧추 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⁷³⁾ 팀워크 산행 시에는 동료 심마니로 하여금

71) 차○준 (2021.4.17). 앞의 구술.

72) 황○제. 앞의 구술.

73) 차○준 (2021.4.17). 앞의 구술.

대신 채취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며, 홀로 산행 시에는 한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채취한다. 불교신자인 백○현 심마니는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채취하기 전에 때론 불경을 잠깐 동안 독송한다. 이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종교적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⁷⁴⁾

VI. 민간요법의 활용과정에 나타나는 전통지식

[사례 1]

지리산 함양군 일원의 채약인을 발굴하기 위해 함양읍 구룡리 조○마을을 탐색하고, 지리산 자락의 오도재를 넘어 마천면으로 향하였다. 오도재의 내리막길 양○마을에 다다르자, 어느 민가의 마당에 약초가 그물에 널려 건조되고 있었다. 집 주인 도○옥(78, 여)에 의하면, 객지생활을 하는 장남의 혈압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주변에서 흔히 자라는 녁쿨약초로 ‘끼꺼러기’라고 불렀다.⁷⁵⁾

[사례 2]

혈압약을 복용 중인 A씨(79세, 여)는 거주지 천변 언덕에서 환삼덩굴 약초를 채취하여 수개월째 민간요법으로 활용해 왔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혈압 수치가 많이 호전되었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복용할 계획이다. 그녀는 ‘땅빈대’로 일컫는 비단풀 약초도 채취하여 고혈압과 관절질환을 다스리는 데 활용한다. 비단풀은 생으로 녹차를 볶듯이 덩어내는 방식으로 조제해서 차로 이용한다. 당일 이를 목격한 B씨(69, 여)도 평소 앓아온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환삼덩굴 약초를 채취하였다.

[사례 3]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랫동안 약초를 채취해온 김○

74) 백○현 (2021.7.21.). 전북 무주군 무풍면. 자택 면담.

75) 도○옥 (2021.9.20.). 경남 함양군 마천면. 자택 면담.

일(79세, 남)은 ‘유근피’로 일컬어지는 느릅나무 뿌리껍질을 상처나 위장 염증 치료약으로 많이 채취해 왔다. 이는 상처로 덧나 고름이 찬 깊은 환부에 뿌리의 껍질을 찢어 고약 형태로 붙인다. 스스로도 덧나 잘 낫지 않던 발가락 상처를 느릅나무 민간요법으로 완치시킨 후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했다. 건조시킨 약초는 물에 담갔다가 방망이로 찢어서 만든다.⁷⁶⁾

이상의 몇 가지 사례는 필자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목격했거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채약인들의 민간요법 실천 내용들이다. [사례 1]에서 구술자는 채취한 약초를 민속어휘로 ‘끄꺼러기’라고 일컬었는데, 삼(蓼)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알려져 있다. 식물명은 ‘환삼덩굴’이고 한약명은 ‘율초(律草)’이다. 이는 여름철에 잎과 너겔줄기를 말려서 탕액으로 복용한다. [사례 2]는 일상의 채약인들(A, B)이 자신들의 혈압이나 고지혈증 지병을 민간요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일한 약초를 채취하는 장면들이다. 채약인들은 환삼덩굴 약초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에 좋은 약초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 채약인 A는 비단풀 약초도 채취해서 고혈압과 관절질환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활용하였다.

[사례 3]의 지리산 함양군 일원의 채약인 김○일은 군 제대 이후 20대 후반 무렵부터 채약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오고 있다. 그는 가을농사를 끝낸 시기부터 봄에 새잎이 나기 전까지 참을 비롯하여 우슬, 망개뿌리, 오가피, 창출(蒼朮), 더덕, 인진쑥 등 여러 가지 약초를 채취한다. 특히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느릅나무 뿌리껍질로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활용했다. 채취한 약초는 주로 함양시장이나 약초 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지만, 약초 수집상(중개상인)이나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에도 응한다. 그가 채취하여 제공한 약초를 민간요법으로 활용하고 효험을 본 사람들도 많다.⁷⁷⁾ 이처럼 채약인들은 오랜 채약활동 과정에서 약초의 성상과 기미, 약성 및 이를 활용한 민간요법 지식을 습득한다. 대부분은 일상생활의

76) 김○일 (2021.4. 17.).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시장 노점 면담.

77) 김○일 (2021.8.21.). 경남 함양군 병곡면. 마을회관 면담.

구전과 경험으로 습득하지만, 일부는 『약초도감』이나 전문가, 인터넷 등으로도 습득한다. 채약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채취한 약초를 자가 활용하거나 판매를 통해 민간요법을 실천한다.⁷⁸⁾

지리산 칠선계곡의 여성 심마니이자 전문채약인 노○옥은 30여 년의 채약 활동 경험으로 지리산 약초의 본초학적 지식과 민간요법을 축적, 전승해 오고 있다. 다음 <표 6>은 국내외 채약활동 경험에서 그녀가 채취해온 수많은 약초들 중 구술을 통해 제시된 민간요법의 일부 내용이다. 설연화(雪蓮花), 홍경천(紅景天)은 중국의 쿤밍, 티벳 일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약초로 각각 폐질환과 당뇨, 보신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홍경천은 우리나라의 녹용이나 인삼에 버금가는 보약재로 활용된다. 이른 봄에 나는 칩순은 여성 호르몬(에스트로젠)을 보충하는 용도로 건조 후 분말로 만들어 복용한다. 이는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 하여 ‘갈용(葛茸)’으로도 일컬어진다. 부처손처럼 습기 찬 바위에 서식하는 이집초는 폐암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관중(貫衆)과 유근 피는 염증에 좋으며, ‘삼주’라고도 일컫는 백출(白朮)은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혈액순환을 도와 위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어린순은 데쳐서 나물로 사용한다.⁷⁹⁾ 백출 약초의 수치(修治) 방법으로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쌀뜨물에 담가 쓰거나, 황토에 볶아 쓰면 위장의 보약이 된다.⁸⁰⁾

<표 6> 전문채약인 노○옥의 민간요법

약초	효능	비고
설연화	폐질환, 당뇨	· 중국 약초
홍경천	보신	· 중국 약초
칩순	여성 갱년기 호르몬 보충	· 건조 후 분말 복용
감송향	명치 아래 복통	· 희귀약초, 덕유산 자생

78) 지리산 산청군 일원의 채약인들의 다양한 민간요법 전승 사례들은 박경용(2011a)의 글과 신용욱 외(2009)의 책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79) 노○옥, 앞의 구술.

80) 신용욱, 신전휘 (2013). 약초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 대구: 도서출판 백초. 158-159.

이접초	폐암	· 바위 서식
관중	염증, 해독	· 4월 뿌리 채취
유근피	염증	· 뿌리껍질 약용
백출	혈액순환, 위장과 비장 보호	· 뿌리 약용, 어린순 나물
천마	팔다리 저림과 경련	· 8월 뿌리 채취

‘주문 채약’으로 일컫듯이, 노○옥은 주로 외부인의 주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들 약초를 채취해 왔다. 일부는 한약방이나 한의원 등 한의약 전문인들에게 보내져 연구 자료와 처방 약재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건강 보전과 치료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판매된다. 상황버섯 등 특정 약초는 암 환자처럼 중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공급된다. 현지조사 때 필자와의 두 번째 면담은 외지에서 단골고객 환자가 방문한다고 해서 성사되지 못했다.

10여 년 전 ‘활인(活人)의 인연’을 맺었던 산삼 이야기도 약초 지식을 이용한 민간요법의 전승과 실천 사례에 해당한다. 그녀가 지리산에 들어와 채약을 하는 10여 년 동안은 전혀 산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떤 인연으로 스쳐지나가는 환자의 질녀가 그녀에게 산삼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 질녀의 큰아버지는 당시 창원의 어느 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정년을 2, 3년 앞두고 몸져누운 상태였다. 그녀는 주문을 받고 산삼을 캐기 위해 산야를 누볐다. 아래 구술처럼 ‘인연’으로 표현했듯이, 그녀는 지리산에서 30년가량 되는 산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그 양반 게 될라고 그러면 너네들 거고, 안 그러면 전혀 안 될 거라고 그랬죠 인연이죠 그건 그 사람이 그걸 먹을 때가 돼서 그런 거죠.”⁸¹⁾

그녀는 당시 시가로 1천만원은 넉넉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50만원에 팔았다. 산에 있는 것이 결코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할 물건이라는 생각에서 싼 값으로 산삼을 건넸다. 그녀는 ‘인연이 닿은 사람한테 가는 것’이라면서 채약인은 자연(산삼)과 외부인(수요자)과의 중개자일 뿐

81) 노○옥, 앞의 구술.

이므로 결코 욕심대로 비싸게 팔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산삼을 건네면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복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환자는 그녀가 건넨 산삼을 복용하고 기력을 되찾아 일흔을 넘기도록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낸다.⁸²⁾ 처음으로 산삼을 채취하여 활인의 적선을 함으로써 생명을 살린 셈이다. 전문채약인으로서의 철학과 직업윤리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는 인류의 수렵채집 생계양식에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던 채집자 본연의 문화적 실천과도 유사하며, 산삼 또한 자연의 일부이자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지리산 자락에서 34년째 채약인으로 살아오는 문○희의 다음의 구술을 통해서도 채약자로서의 유사한 철학을 읽을 수 있다. “한번은 제가 상황버섯을 한 300만원어치 따왔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돈이 100만원 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만원어치만 드려요. 300만원어치 전부를 줬어요.”⁸³⁾ 비록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 밤을 지내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채취해온 약초일지라도, 전문채약인들은 약초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활인의 적선을 실천한다. 그는 위의 노○옥 사례처럼, 수요자의 주문 채약에 응하기도 한다. 그는 항암치료를 위한 민간요법 용도로 상황버섯을 집중적으로 채취하여 상당수의 암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추산컨대, 그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암환자가 60여 명이나 된다. 그가 제공한 약초로 병을 고친 어느 유명 기업인의 사례처럼, ‘기적’일 정도로 극한 질병을 고친 치병의 비사(秘史)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처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를 찾아온 환자들과의 만남이 그만큼 엄중했음을 암시한다.

82) 위의 구술.

83) 문○희, 앞의 구술.

VII. 맺음말 : 무형문화로서의 함의와 보존, 전승 방안

지금까지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생태환경에 대한 채약인의 사유체계를 중심으로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 및 규범과 신앙, 채취 월령과 기술·지식, 민간요법의 활용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심마니와 약초꾼을 포함하는 채약인들은 산지 지형과 토양, 기후 등의 자연환경에 조응하는 약초의 서식 및 생장 조건에 대한 자연지식을 바탕으로 채약활동을 해왔다. 약초의 전유에 대한 사유체계와 팀 산행의 규칙 및 금기, 신격에 대한 관념과 태도 등을 포함하는 채약 규범과 신앙은 채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채약활동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이다. 채약인들은 원만한 채약활동과 채취 성과를 위해 최적의 채취시기(월령)를 고려하고, 산행의 길 찾기와 ‘방통’ 보기를 비롯하여 약초의 원형과 약성 보존을 위해 채약 절차와 도구의 기술적 활용을 꾀한다. 또한 오랫동안 약초를 채취해오면서 익힌 관련지식과 민간요법을 바탕으로 채취한 약초를 자가 활용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보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일조한다.

전통의 가치가 지식재산으로 주목되는 시대에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식, 재발견함으로써 이를 보존, 전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채약 전통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성에 기초한 토착지식체계라는 점에서 무형문화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삼(蔘)을 비롯한 약초는 건강 보전과 질병 치료를 위해 오래 전부터 왕실 진상품이나 대외 의례품, 화폐 대용품, 생활자원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⁸⁴⁾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은 자연환경과 약초식물의 상호성에 대한 채약인의 인지방식 및 관념, 규범과 신앙, 기술·지식체계, 구비전승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통의료와 민간지식, 생산민속, 산간신앙, 채삼은어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채약 습속은 ‘약초복합

84) 국립목포대학교 도시문화연구원 앞의 보고서, 230-231.

(medical herbs complex)' 현상으로 인류 채집생활문화의 원초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 약초의 생산과 분배, 유통, 소비의 과정 속에는 인류의 원초적인 채집 유전자가 습합된 상생과 공존의 문화원형이 내재한다. 즉 생명 존중과 생태주의, 나눔과 배려, 조화와 공존·공생, 공유와 호혜주의 원리들이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 속에 침전되어 있다. 채약 활동이 생물자원과 생태계의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개발 위주의 근대적 생태관념 및 자연자원 관리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함의도 지닌다.⁸⁵⁾

문화 및 생명 다양성과 전통지식의 가치와 보존, 전승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 마련과 실천은 긴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관련 연구 자료들을 종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발굴, 보완해서 채약 습속에 대한 전통지식의 분류체계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는 채약인들이 채취활동 과정에서 생성, 축적, 전승해 온 채약 습속의 전모가 생태환경과 기술·지식, 사회관계, 사유체계와 이념, 전승 서사(敍事), 민간요법 등은 물론 변화와 지속의 측면까지 빠짐과 겹침 없이 담겨져야 한다. 지역의 생태·환경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한 유사성과 차이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누락되었거나 등한시된 채약의 자연지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채약 습속을 전통지식의 범주로 묶어냄으로써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 전승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목록화 하여 우선순위의 종목부터 등록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통지식이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⁸⁶⁾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은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 전통지식의 측면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하다.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무형문화재로 등재시킴으로써 보존과 전승에 나아가 그 활용 방안까지 도출 가능하다.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 중 어떤 내용

85) 위의 보고서, 232.

86)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을 무형문화재로 포함시킬 것인지와 전승 주체의 선정과 전승체계의 구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되겠지만,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보존, 전승,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채약문화전승관 형태로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현재 관련 자료들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일부 문화시설에서 나비 채집 방식으로 전시, 소장되거나 상당 부분은 개별 연구자나 기관, 단체에 박제화 된 상태로 잠자고 있다. 이를 한곳에 모아 구술과 물증, 문서, 사진, 영상 등 자료의 형태별로 분류하여 특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및 전문전시관 형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소위 ‘전통 채약전문인 제도’를 만들어 심마니학교와 연계하여 채약 습속을 보존, 전승시키는 방안이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생업활동의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채약활동을 해온 심마니·약초꾼들은 지역의 산지 지형과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다. 이들을 통해서는 지역 산야의 약초지도와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약초 자원의 보존과 관리, 연구 및 지식 재산권 활용을 위한 토대로 삼는다. 지역의 전문채약인들은 주변의 산지 지형을 꿰뚫고 있으므로 등산객이 많은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지역을 중심으로 산약구조대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덕유산 무주군 일원의 전통심마니들 중 일부는 실제로 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을 도와 등산객 조난자를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채약문화전승관과 연계해서 심마니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전통심마니의 채약 윤리를 비롯한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도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등한시되어온 본초학적 특성이나 산지 지형, 토양, 기후 등의 생태환경에 대한 채약인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에 주목하여 그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관점과 분석적 지향보다는 전승 주체의 경험과 기억,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여 구술 내러티브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채약인들의 생각과 관점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이 전

승되는 양상을 일상적 채약 경험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여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보존, 전승,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남부권 역의 지역 특성에 기초한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생생하게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개괄적 서술에 치중함으로써 엄밀한 분류체계를 도출하지 못했다. 채약의 기술·지식체계와 사회체계, 이념체계를 포함하는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에 대한 분류체계를 빠짐과 겹침 없이 작성하고, 무형문화재 목록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채약 습속, 채약인, 심마니, 약초꾼, 전통지식, 무형문화

[참고문헌]

- 강석훈, 이지은 (2012).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식재산권 연계 방안. 문화정책 논총, 26(2), 80-105.
-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2021). 심마니와 약초꾼의 습속. 2021년 한국무형유산 종합조사 심화연구 최종보고서.
- 국립민속박물관 (2016). 약초상과 심마니.
- 권재열 (2001). 전통지식의 개념과 그 보호방안의 검토. 산업재산권, 14, 31-54.
- 김이협 (1979). 심매꾼(심마니) 은어집. 방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4-163.
- 박갑록 (2004). 전통지식의 법적보호에 대한 접근 방법. 지적재산권의 현대와 미래. 서울: 법문사, 147-161.
- 박경용 (2009a). 전통의료 ‘경험지’ 의 의료문화사적 가치와 집성 및 활용방안. 사회과학담론과정책, 2(2), 171-192.
- 박경용 (2009b). 채약 민속과 민간의료. 인문학연구, 76, 39-73.
- 박경용, 석대권, 배영동, 이균옥 (2009). 경북의 민속문화 2.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박경용 (2011a). 산청지역 민간요법의 실재와 전승양상. 실천민속학, 18, 230-269.
- 박경용 (2011b). 죽방렴과 주낙어업의 자연·우주 전통지식. 한국학연구, 38, 101-128.
- 박영섭 (1982). 채삼인 은어의 분석고 논문집, 2.
- 배도식 (1993a). 심매마니의 생활. 한국 민속의 현장. 서울: 집문당, 403-420.
- 배도식 (1993b). 심매마니의 은어. 한국 민속의 현장. 서울: 집문당, 421-437.
- 배병일 (1994). 산삼채취인-심매마니의 관습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비교법학, 창간호.
- 설혜심 (2018). 인삼 사냥꾼(Ginseng Hunter)-북미대륙의 채삼(採蔘) 관행과 채삼인의 이미지. 인문과학, 113, 169-203.
- 손진태 (1931). 강계 채삼인의 습속. 조선민속, 2.
- 산청군, 신용욱, 박경용, 김흥기, 신전휘 (2009). 약초와 민간요법. 기행. 산청: 산청군.
- 신교균 (1980). 산삼채취인의 은어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9, 1-71.
- 신용욱, 신전휘 (2013). 약초사진으로 보는 동의보감. 대구: 도서출판 백초.
- 연호택 (1992). 심매마니 은어의 연구-오대산 지역을 중심으로. 관동대논문집, 20, 79-93.
- 연호택 (1993). 심매마니 은어의 연구 2-오대산 지역과 설악산 지역 은어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관동대논문집, 21, 55-76.
- 우승하 (2014). 심마니의 습속 변화. 민속학연구, 35, 6-28.
- 이규태 (1985). <삼매꾼> 풍속고 개화백경. 4, 103-107.
- 이길록 (1975). 채삼인의 은어와 풍속 설악산, 오대산을 중심으로. 강원어문학, 3, 14-25.

- 이만철 (1997). 인제영약 산삼가업 민속사 연구. 인제민속사. 인제: 인제문화원
- 이승녕 (1957). 언어고-설악산 산삼채취인의 은어를 중심으로 하여. 일석 이희승선생송수 기념논총.
- 이승녕 (1980). 소말단계에 들어선 설악산 심메마니 은어에 대하여. 방언, 4.
- 이신팔 (1937). 삼메말(채삼어). 한글, 50(5-10).
- 이용한 (2001a). 심메마니-홍종덕·정병극·양승철·김영재. 끈-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서울: 실천문화사, 11-35.
- 이용한 (2001b). 약초꾼-김명복. 끈-사라져가는 토종문화를 찾아서. 서울: 실천문화사, 57-69.
- 임덕성 (1977). 산신령을 만나는 심메마니. 숨어사는 외톨박이. 서울: 뿌리깊은나무, 142-153.
- 장태진 (1965). 지리산지구 산삼채취인 은어의 실태. 가람 이병기선생 송수기념논문집. 357-364.
- 장태진 (1985). 채산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박태권 회갑논문집.
- 장정룡 (1992). 설악산 심메마니 연구. 속초의 향토문화. 속초: 속초문화원.
- 전북대학교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010). 무형문화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전통지식의 수집과 아카이브 방안 연구계획서.
- 정성미 (2009). 삼마니·한지장·광부·강원도, 경기도 일부 지역의 민족생활어. 서울: 국립국어원.
- 최범훈 (1984). 삼마니 은어 연구. 한국문학연구, 6·7, 95-128.
- 최승순 (1975). 강원도지방 채삼인 습속. 한국민속학, 8, 46-59.
- 최진규 (1995). 발로 찾은 향토명의. 서울: 청아출판사.
- 최진규 (1997). 약초꾼 최진규의 토종약초 장수법. 서울: 태일출판사.
- 최진원 (1938). 채삼용어. 한글, 50(6-7).
- 최호균 (1997). 16세기말 채삼사건과 대여진정책. 대동문화연구, 32, 115-131.
- 황창협 (2013). 지리산의 보석 같은 약초 이야기. 진주: 도서출판 혜명.
- Crain, J. G. & Angrosino M. V. (1996). 한경구·김성례 옮김.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서울: 일조각.
- Ha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 Pelto, P. & Pelto G. H. (1978). Anthropological Research-The Structure of Inqui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cliffe-Brown, A. R. (1980). 김용환 역. 원시사회의 구조와 기능. 서울: 종로서적.
- Shalins, M. D. (2014). 박충환 역. 석기시대 경제학. 서울: 한울.

White, L. A. (2002). 이문웅 옮김. 문화의 과학. 서울: 아카넷.

今村鞆(1931). 山人蓼採人の風習. 靑丘學叢, 六, 110-123.

小倉進平(1929). 山人蓼採取業者の隱語. 平安南北道の方言. 京城 京城帝大法文學部

小倉進平(1931). 山人蓼採取業者の隱語. 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 京城 京城帝大法文學部

[국문초록]

채약 습속은 약초의 채취활동 과정에서 생성, 축적되고 전승되어온 인류의 생업문화유산으로 채집 생계양식의 원초적 일면을 보여준다. 이는 성상(性状)과 기미(氣味), 약성 등 본초학적 지식을 비롯하여 약초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전 단계에서 축적된 인류문화의 중요한 지혜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약초의 서식·생장 조건 및 채취 규범과 신앙, 채취 월령과 기술·지식, 민간요법의 활용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 전승양상을 살펴보았다. 심마니와 약초꾼을 포함하는 채약인들은 산지 지형과 토양, 기후 등의 자연환경에 조응하는 약초의 서식 및 생장 조건에 대한 자연지식을 바탕으로 채약활동을 해왔다.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은 자연생태와 약용식물의 상호성과 이에 대한 채약인의 인지방식 및 사유체계, 규범과 신앙, 기술·지식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형문화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이는 ‘채약의 문화복합’ 현상으로 인류 채집생활문화의 원초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식, 재발견함으로써 이를 보존, 전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채약 습속을 전통지식의 범주로 묶어냄으로써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 전승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문채약인 제도와 연계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채약 습속의 전통지식을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채약문화전승관 형태로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Abstract]

**Traditional Knowledge and Sociocultural Meanings as
Intangible Culture of Medicinal Herb Gatherers
– By Way of Oral Narratives of Ginseng Diggers(Simmani) and
Herbalists on Giri/Deukyu Mountain –**

Bak, Gyeongyong (Daegu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raditional knowledge of the people who gather medicinal herbs and sociocultural meanings as intangible culture. For this, I divided to four important factors the transmissional aspects of it so as to operationalism and explanation. They are conditions of inhabitation and growth of medicinal herbs, norms and religions, skill and knowledge for gathering of medicinal herbs, the use of folk therapy, etc. Collectors of medicinal herbs(ginseng diggers, herbalists) have carried out their gathering tasks based on natural knowledge about conditions of inhabitation and growth of medicinal herbs, and are closely connected with mountain configuration, soil and climate, etc.

Traditional knowledge of medicinal herb gatherers involves various sociocultural meanings as intangible culture because it contains the recognition orientation and speculation about the reciprocity between natural ecology and medicinal herbs and concerning norm and religious belief, skill and knowledge for gathering medicinal herbs. This is namely the 'culture complex of gathering of medicinal herbs' and shows the original form and its continuation of mankind's gathering folk of medicinal herbs. It is necessary for planning the way of conservation, transmission and use of it through the recognition and rediscovery of the values of intangible culture, being involved in traditional knowledge of medicinal herb gatherers. First, a response for conservation,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e must be expended. For this, we have to abstract the factors of traditional knowledge from medicinal herb gatherers. Second, we have to register their traditional knowledg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necting to the national system of professional collectors of medicinal herbs. Moreover, we must hurry up the construction of a digital archive and an exhibition hall for the gathering folk of

medicinal herbs.

【Keywords】 gathering folk of medicinal herbs, collectors of medicinal herbs, ginseng digger(simmani), herbalist(Yakchogun), traditional knowledge, intangible culture

논문투고일: 2022년 7월 13일 / 논문심사일: 2022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3일

【저자연락처】 bkyong@daegu.ac.kr